

# “몸통은 盧” “증거 내놔라”

## 검찰-盧 전 대통령 법리대결 앞두고 장외공방 치열

### “권여사·건호씨 참고인” “도덕적 책임과 범죄는 달라”

검찰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본격적인 법리대결을 앞두고 장외공방을 치열하게 전개하고 있다.

검찰은 13일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 측에 건넨 600만 달러가 결국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와 아들 건호씨는 ‘참고인 신분’이라고 밝히며 노 전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있다.

반면, 노 전 대통령은 12일 홈페이지에 반박문을 올려 “도덕적 책임을 지는 것과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른 일”이라고 밝히며 검찰에 정면 대응하고 있다.

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진술의 모순점을 찾아내는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권 여사가 본인이 박 회장 돈을 받아 채무변제에 썼다면 구체적인 사용처나 변제 내용을 진술하지 않았음에도 그가 ‘참고인 신분’일 뿐이고 추가 소환 계획이 없다고 못박아 이번 사건이 노 전 대통령의 피의사실을 밝히는데 맞춰져 있음을 드러냈다.

검찰은 연씨와 건호씨 조사를 끝낸 뒤 이번 주 중 노 전 대통령을 100만 달러, 또는 500만 달러를 포함한 600만 달러에 대한 포괄적 뇌물죄의 피

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무현 “증거 내놔라”=노 전 대통령은 법적으로 문제없었음을 내세우며 검찰과 맞서고 있다. 그는 반박문에서 “아내가 한 일이다. 나는 몰랐다”고 말하는 게 구차하기도 하지만 몰랐던 일은 몰랐다고 말하기로 했다”고 법적 책임을 피해왔다. 그는 특히 “몰랐다니 말이 돼?” 이런 의문을 가지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증거”라며 법조인 출신답게 증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박 회장이 내가 아는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보도가 사실이라면 그가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무슨 특별한 사정을 밝혀야 하는 부담을 져야 할 것”이라며 검찰 수사와 박 회장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제는 재임 기간에 박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점을 몰랐다면 도덕적 비난은 받더라도 뇌물죄는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나아가 이 경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적용도 쉽지 않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시각이다. 고위 공무원들의 경우 직무 대가성 범위를 폭넓게 해석하는 뇌물죄와 달리 알선수재죄는 특정한 약속이 전제돼야 성립한다.

연합뉴스/박지경기자 jkpark@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 연철호씨를 재소환하고 아들 건호씨를 오는 14일 재소환하기로 한 가운데 13일 오후 김해 봉하마을 사저에서 경비원들이 배달된 우편물을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외나무 다리’ 맞선 대통령과 후원자

## 盧, 박회장 진술 정면 반박하며 대립각

### 600만달러 ‘해석’ 달라 대질신문 관심사



노무현 전 대통령



박연차 회장

검찰 수사팀이 1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을 바짝 조이면서 전직 대통령과 그의 후원자가 ‘외나무다리’에서 둘러설 수 없는 진실게임이 벌어지게 됐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주변 인물에 돈을 건넨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진술 등을 ‘무기’로 노 전 대통령에게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지만 노 전 대통령도 만만치 않게 향전 태세를 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노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홈페이지를 통해 박 회장의 검찰 진술에 대한 보도를 정면으로 반박·해명하면서 옛 후원자였던 박 회장과 대립각을 세우는 모양새

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요청으로, 그를 보고 건넨 돈이었다”는 취지의 박 회장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세에 몰린 노 전 대통령은 이에 대해 “박 회장이 검찰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을 것”이라며 이를 직접 자신이 밝혀야 하는 부담이 있지만 끝까지 이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박 회장이 ‘약점’을 잡혔거나 ‘선처’를 조건으로 검찰이 바라는 방향으로 사실이 아닌 진술을 했다는 뜻으로 읽힐 수 있는 미묘한 대목이다.

검찰은 돈을 노 전 대통령 측에 전달한 장본인인 박 회장의 진술을 무엇보다 중요시 하고 있다.

문제가 된 박 회장의 600만 달러는 계좌추적을 거의 할 수 없는 현금인데다 자금의 성격과 사용처, 대가성, 최종 종착지를 둘러싸고 박 회장과 노 전 대통령 측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의혹 덩어리’가 됐을 만큼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또 검찰이 지난해 말부터 ‘박연차 게이트’로 불릴 만한 이번 수사를 위해 칼을 뽑았지만 관련 정황 증거나 회계자료, 통화내역, 다이얼 등 어느 정도 갖췄다고는 해도 사실상 박 회장의 ‘입’에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동안 여러 유력 인사가 박 회장에 현 금으로 돈을 받았는데도 박 회장과 대질신문에서 ‘제압’돼 범행을 실토할 정도로 박 회장의 ‘입’은 위력을 발휘해 왔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도 특유의 승부사 기질을 발휘해 결과적으로 구속 직전의 정삼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구조’해 냈고 본인과 가족들을 위한 방어에도 적극 나섰다. 노 전 대통령과 한때 든든한 경제제 후원자였던 박 회장이 이런 서로에게 창을 겨누고 검찰청사 조사실의 테이블을 사이에 둔 채 마주부 처지가 된 셈이다.

/연합뉴스

# 檢, 盧 전 대통령만 처벌하나

## 600만달러와 연결고리 찾기 주력

“박연차 게이트” 수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 소환조사라는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는 가운데 검찰의 처벌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은 지난 7일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체포한 것을 시작으로 10일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 연철호 씨, 11일 권양숙 여사, 12일 아들 건호 씨를 조사했다.

거의 매일 노 전 대통령의 최측근

과 일가를 줄줄이 불러들인 것이다.

권 여사의 경우 이르면 이번주 노 전 대통령과 함께 검찰 조사를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으나 모두의 예상을 깨고 11일 부산지검에 전격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특히 권 여사나 건호 씨에 대해 ‘참고인’이라고 선을 그어 노 전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13일 건호 씨와 권 여사가 현재 참고인 신분

이고 앞으로도 피의자로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재차 말했다. 그는 또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100만 달러 전달 과정에) 권 여사가 등장한다는 사실을 사파문 발표 뒤 처음 알았다”며 노 전 대통령을 이번 사건의 ‘몸통’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기도 했다.

결국 앞으로 검찰 수사는 600만 달러와 노 전 대통령과의 연결고리를 찾는 데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등에 따르면 박 회장은 지난해 2월 연 씨의 홍콩 계좌로 500만 달러를 전달했으며 이 돈은 노 전 대통령이 나 건호 씨 몫으로 의심을 받고 있다.

박 회장은 또 노 전 대통령 재임기간인 2006년 6월 청와대에서 전직 비서관에게 100만 달러를 전달했다는 데 노 전 대통령은 권 여사가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개인적으로 받은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이 돈을 요구했다는 박 회장의 진술이 있고 정 전 비서관이 100만 달러를 받은 뒤에 대통령에게 보고도 하지 않은 채 영부인에게 전달했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

다. /연합뉴스

# 민주당 ‘盧 전 대통령 대응’ 진퇴양난

민주당의 처지가 딱하다.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에 관한 국민적 의혹이 커지는 가운데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설부터 두둔할 수도, 비판할 수도 없는 상황 때문이다.

더욱이 4·29 재보선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노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이 임박하고 있어 ‘정권 심판’이라는 당의 재보선 전략은 거의 사라진지 오래다.

정세균 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

의에서 “현재 진행상황만 보더라도 참으로 민망하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하면서도 “검찰 수사가 어디까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인지 알 수 없는 초동단계”라며 구체적인 언급은 자제했다.

송영길 최고위원도 “검찰이 한 쪽 형님은 가져왔어 수사하면서 다른 쪽 형님 앞에만 가면 스톨하느냐”며 “이렇게 편파적이고 불공정하게 수사를 하면 정권이 교체

된 4년 뒤에는 이런 현상이 더 심화된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며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노 전 대통령 부인 이 돈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 우리가 뭐라고 하겠느냐”며 “선불리 대응하기보다는 이 상황이 빨리 마무리될 거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전경 및 경찰행정학과 특채/남·여 순경 공채**

**수시접수중 (종합 및 문제풀이)**

**경 찰** 전국 최고의 교수진 합격 보장! 전문 시스템 원장 안명섭

※합격시스템

6개월과정	1년과정	순경공채	특 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개월 완성 3회 반복 학습</li> <li>영어 기본이 된 수강생 한함</li> <li>수강료 교재 25% D/C</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개월 완성 6회 반복학습</li> <li>영어 기본이 인턴 수강생 한함</li> <li>수강료 50% D/C 교재 25% D/C</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남·1차: 968명 2차: 214명</li> <li>여·1차: 40명 2차: 47명</li> <li>101단·1차: 120명 2차: 120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경특채 240명</li> <li>경찰행정학과 특채 100명</li> <li>경찰특채 특채 38명</li> </ul>

※ 종합 1개월: 16만원 · 문제풀이 1개월: 13만원 · 단과: 9만원

**경 찰 전 문** **메가경찰학원** www.gmega.co.kr 226-5050

전남여고 후문 학원가

**공인중개사 박문각** 공인중개사전문학원

**2009.V-VIP회원안내**

주말반	토요일 15~22시	공 범	기 본	일요일 9~13시	민 법
월	화	수	목	금	토
공 범	개 본	민 법	세 법	민 법	중개사법
이중원 교수	전호 경제학사	강영용 원장	김윤실 회계사	김영용 원장	신영민 교수

▶ 합격률 100% 책임 지도 관리 ▶ 국제비문 100%(고용보장)

▶ 출석부 관리, 숙제, 복지 시험 시행 ▶ 선착순 30명 마감

▶ 기출문제 풀이(수요일)만, 목요일(기본, 오후 3시~6시) ▶ 박문각 교재, 동영상30%DC

**"전국 최다, 최고의 합격생 배출한 서울 박문각 합격 시스템(실강의)으로 운영"**

**개강** 평일반 현재접수중! 529-8838

주말반 4월18일(토) ■ 위치:운양동 광양고교 옆 삼애신협 2층

■ BUS:37번, 65번, 89번, 99번  
■ BUS:운양고가 입구(제2광천교) 26번, 38번, 47번, 64번, 151번  
■ BUS:서강정보대 입구 18번, 58번, 63번

**= 48년의 전통! 오랜 경험이란 헤아릴 수 없는 값을 치른 보물이다! =**

**7.9급 공무원 전직렬**

**응직문제풀이 4주** 해교세관감법검마청교보보관복소기 합후 소방인력 8395명 출원한다

**시험일정 및 채용인원**

인 원	시험일	개 강	본 학원 강의 과목
국·지방 9급 2320명, 7급 800여명 공채	4월 22일, 23일, 24일, 25일, 26일, 27일, 28일, 29일, 30일, 31일, 5월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11일, 12일, 13일, 14일, 15일, 16일, 17일, 18일, 19일, 20일, 21일, 22일, 23일, 24일, 25일, 26일, 27일, 28일, 29일, 30일, 31일, 6월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11일, 12일, 13일, 14일, 15일, 16일, 17일, 18일, 19일, 20일, 21일, 22일, 23일, 24일, 25일, 26일, 27일, 28일, 29일, 30일, 31일, 7월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11일, 12일, 13일, 14일, 15일, 16일, 17일, 18일, 19일, 20일, 21일, 22일, 23일, 24일, 25일, 26일, 27일, 28일, 29일, 30일, 31일, 8월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11일, 12일, 13일, 14일, 15일, 16일, 17일, 18일, 19일, 20일, 21일, 22일, 23일, 24일, 25일, 26일, 27일, 28일, 29일, 30일, 31일, 9월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11일, 12일, 13일, 14일, 15일, 16일, 17일, 18일, 19일, 20일, 21일, 22일, 23일, 24일, 25일, 26일, 27일, 28일, 29일, 30일, 31일, 10월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11일, 12일, 13일, 14일, 15일, 16일, 17일, 18일, 19일, 20일, 21일, 22일, 23일, 24일, 25일, 26일, 27일, 28일, 29일, 30일, 31일, 11월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11일, 12일, 13일, 14일, 15일, 16일, 17일, 18일, 19일, 20일, 21일, 22일, 23일, 24일, 25일, 26일, 27일, 28일, 29일, 30일, 31일, 12월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11일, 12일, 13일, 14일, 15일, 16일, 17일, 18일, 19일, 20일, 21일, 22일, 23일, 24일, 25일, 26일, 27일, 28일, 29일, 30일, 31일	4월 15일(주·야 2회반 포함) (현재상업입수중)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 행정학, 공직법, 세법, 회계학, 형법, 형소법, 교정학, 헌법, 인사법, 소방법, 보건학, 상식, 기타

**= 無等은 옛 명성 그대로 강의 第一! 합격 "最多"란 말을 듣고 있습니다!! =**

**무등고시학원** 광주 동부서우 (중앙초교 후문) 222-4560

www.mdgosl.co.kr

**한라기술의 공기열보일러를 설치하시면?**

**전기1+공기중 열에너지2+열에너지3**

- 병커 C유 대비 70%
- 도시가스 대비 65% 절감
- 전기보일러 대비 3배의 효율
- 한 대의 기계로 냉방, 난방, 온수까지 3배의 효과
- ◆ 생산공장, 대중탕, 호텔, 병원, 복지시설, 식당 등
- 전국 시,군 데럭점 및 딜러 모집합니다.

**인리웬스텍(주) 특판사업부** 063)838-2231, 010-6794-0094